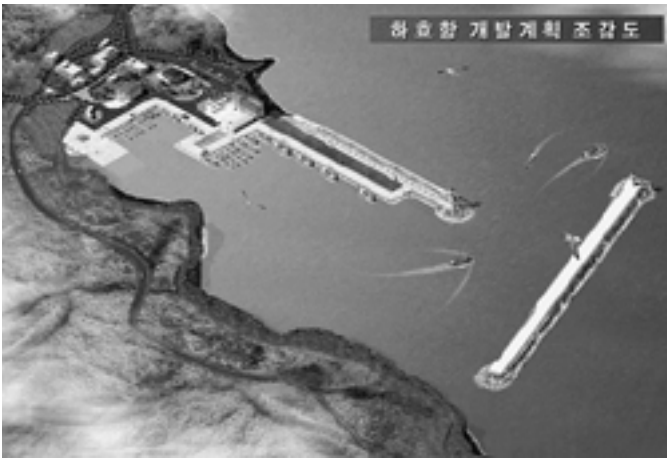


이달의 어항 28 - 서귀포 하효항

서귀포의 숨은 진주, 하효항

제주 남부권 관광 거점으로 급부상 봄바람에 눈을 뜨는 '쇠소깍' 을 아십니까?



하효항 개발계획 조감도

제주에 봄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훈훈한 봄바람에 봉오리를 터뜨리는 유채꽃과 매화, 발에 채는 돌멩이에도 생명이 깃든다.

해안일주도로를 따라 봄기운을 찾아가 다보면 저절로 발길이 멈추는 곳,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서귀포의 숨은 진주! 하효항이 있다.

하효항은 일반인의 발길이 드문 곳으로 순박한 어심(漁心)이 녹아나 있고 제주의 지역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찾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 항 옆으로는 빼어난 절경, 옥빛 호수 '쇠소깍' 이 있어 감탄을 절로 하게 만든다. '한라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효돈천을 따라 흐르다 바다로 빠져버릴 찰나에 자리잡은 '쇠소깍'. 길이 120m, 폭 10~30m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지만, 눈이 시리도록 매혹적인 물빛과 호수 양쪽에 서있는 기암절벽이 조화를 이루면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이기심이 발동하는 곳이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하효항이 제주도 서귀포 동부권 관광 거점으로 급부

상하고 있다.

하효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것은 1991년, 2002년 실시시설계용역을 거쳐,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시설현황을 보면 동방파제 191m와 남방파제 300m를 계획으로 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물양장은 계획 210m 대비

161m를 남겨둔 상태이고 호안 50m, 선양장 30m, 선류장 140m 등이 계획되어 있다.

수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인구 128가구 273명, 겸업인구 90가구 200명이며, 현지 어선 38척이 갈치를 주어종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복 양식도 이뤄지고 있다. 생산량은 년 47톤, 생산액은 3억



6천여만원선이다.

지난해까지 80억원을 투입,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283여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귀포시는 최근 6억원을 들여 하효항과 쇠소깍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에 돌입했으며 하효항과 효례교, 쇠소깍을 연결하는 1.75km 도로 확장, 하효항과 쇠소깍을 연결하는 0.5km 해안

도로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하효항이 완공되고 주변 관광 인프라가 구성되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제주도 근해 어장과 연계한 지역 중심 어업근거지는 물론 관광잠재력과 생태 학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서귀포 동부권 관광 거점으로 급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하효항 주변에서 제주 지역 방언을 찾아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하효' 라는 지명의 옛이름 "알쇄둔·알쇄둔"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마을제를 지내는 망동산, 주민들의 활쏘는 장소였던 위사장·아랫사장, 기우재를 지냈던 큰당, 소금을 채취했던 소금막과 감낭밭, 고막곶 등 제주 방언의 유래를 찾아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찾기가 될 것이다.

주변 관광지로는 제주 오름 중에 가장 유명한 제지기 오름, 화산암으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문여 해안, 천지연, 천제연 폭포와 더불어 제주 3대 폭포인 정방폭포,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실내수목원 여미지 식물원도 찾아볼 만하다.

제주의 12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한발짝만 내딛어도 관광명소가 아닌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많다. 그러나 올 봄 제주도를 찾는다면 꼭 하효항을 찾아보자. 손 때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절경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 제주국제공항 → 서부관광도로 → 제주월드컵경기장 → 서귀포시내 → 효돈동 하효항
- ◎ 제주국제공항 → 14번국도 → 서귀포시 → 12번국도 → 효돈동 → 하효항